

# 창업 보다 힘든 생존... 절반이 3년 못버터

### 전국 생존률 평균 53.5%...광주 52%·전남 47% '하위권'

### 5년 생존률 38% 불과...창업률 동반 하락 경기침체 악순환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새로 창업한 사업체 3곳 가운데 2곳은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겨울호에 게재된 '지역별 창업에 따른 고용변동과 고용격차'에 따르면 2011년 1분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3년 생존율은 전국 평균 53.5%로 조사됐다.

박진희 연구원은 고용보험 DB(데이

터베이스)를 토대로 지역별 창업 현황, 사업체 지속 기간, 고용 근로자 수 변화 등을 분석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3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이 45.4%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47.1%, 전북 47.8%, 경북 48.5%로 뒤를 이었다. 광주 역시 52.4%로 평균 이하였다.

반면 생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경기(각각 56.5%)였으며 인천(55.1%), 서울·제주(각각 54.8%), 대전(53.2%), 부산(52.8%), 경남(52.2%) 순이었다.

같은 시기에 창업한 사업체의 5년 생존율의 전국 평균은 38.3%에 불과했다. 강원(32.8%), 전남(34.4%), 전북(35.8%), 경북(36%), 광주(36.3%) 순으로 낮은 반면 대구(41.9%), 제주(41.8%), 경기(40.1%), 인천(39.4%), 울산(39.2%), 대전(38.6%) 순으로 높았다.

3년간 생존한 사업체의 평균 고용 증가분은 1.3명이었다. 전남(0.8명), 제주(0.9명), 강원(1명)은 평균치를 밑돌았다.

문제는 낮은 생존율과 함께 창업률도 낮아지면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존률이 낮아지면서 창업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평균 창업률은 18.7%였다. 총 135만 개 사업체 중 25만 7000곳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20%대 창업률보다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제주(23.2%)와 강원(20.5%), 광주(19.8%)가 창업률이 높았지만 서울(17.7%), 부산(18.2%), 대구(18.3%)는 저조했다.

박진희 연구원은 "생존율이 낮은 전남과 강원, 전북, 경북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울러 창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과 부산, 대구는 창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501.67 (+26.26)    금리 (국고채 3년) 2.08% (0.00)
- ↓ 코스닥 782.45 (-5.25)    ↑ 환율 (USD) 1088.70원 (+2.30)

## 한우값 오르고 돼지고기는 보험

### 한우 도축마릿수 감소·수요 증가...설 명절까지 상승 전망

다가오는 설명절까지 한우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4일 한우의 도매가격이 연말연시 모임과 설명절 등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내년 2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12월 한우 1등급 기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와 연말연시 수요 증가 영향으로 1kg 당 1만6500~1만75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954원보다 3.4~9.7% 높은 수준이다. 내년 1~2월 한우 도매가격도 설 연휴 수요로 올해 12월보다 상승한 1만7500~1만8500원으로 전망됐다.

이달 돼지고기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돼지 자육가격은 김장철과 연말

수요 등 영향으로 탕박 기준 1kg당 평균 4300~4600원에 거래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12월 돼지고기(탕박·1kg) 가격은 4335원이었다.

지육은 두부, 꼬리 등을 제거한 상태의 도축 돼지를 말하며 탕박은 도축과 정에서 돼지를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분사해 털을 뽑는 작업 방식이다.

또 이달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은 지난해 같은 달 1551원보다 하락한 1200~1300원(특란 10개 기준)으로 전망된다.

내년 1~2월 계란 산지가격(특란 10개)도 올해 1월(2175원)과 2월(1795원)보다 하락한 1200~1400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월 육계 산지가격은 1kg당 지난해 동기 1329원보다 하락한 1200~13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 평동농협 '영농지도 선도농협상' 조합원 교육·로컬푸드사업 육성 등 성과

광주 평동농협(조합장 김익찬)이 4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선도농협상 시상식에서 '2017 지도사업 영농지도부문 선도농협상'을 수상했다.

이날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지도사업 선도농협상은 전국 113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지도사업을 펼친 농협에 수여하는 상이다.

영농지도 부문은 전국 10개, 여성복지 부문 5개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평동농협은 시 단위 지역본부에서 유일하게 영농지도부문 선도농협상에 선정됐다. 조합원 교육, 로컬푸드사업 육성,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농촌인력증가사업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평동농협은 영농지도부문에 20여억원의 무이자자금 지원과 4급 특별승진(1명)을 지원받는다.



김익찬 조합장은 "선도농협상 수상은 조합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사업을 이용해

왔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지역사회와 조합원이 함께하는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

으로 신뢰받는 평동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 다중주택 건축주 직접 시공 못한다

### 내년 6월 시행...이달부터 200㎡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건축주가 직접 거주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가 시공하도록 허용해 왔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건물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규제 강화가 추진되는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 심의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일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한다.

또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및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공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물은 건축주의 자율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였다.

법 유효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10% 고금리 가계대출 2년7개월내 최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한 지난 9~10월 10% 이상 고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 차주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을 보면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9월 기준으로 0.5%였다. 이는 2015년 2월(0.5%) 이후 최고다.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10월에도 0.5%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비중은 기준금리가 점차 내려가면서 서서히 축소됐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2013년 1월 3.3%에 달했으나 2014년 2월 0.9%로 0%대로 내려온 10% 이상 대출 비중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로 내려간 지난해 6월 0.2%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2월 0.3%, 4월 0.4%로 조금씩 늘더니 9월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반면 3% 미만 저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은 줄었다.

한은에 따르면 10%가 넘는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고금리 대출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질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다. 한은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1.25%→1.50%)하고 내년에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연말 이벤트

### 뷔페 예약시 15% 할인...랍스타 등 그릴아이템 무제한 제공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은 연말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윈터 셀레브레이션 디너 뷔페'(Winter Celebration Dinner Buffet)를 진행한다.

뷔페 레스토랑 '모래시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무제한 라이브 그릴 프로모션을 연장해 랍스타, 전복, 양갈비 등 인기 그릴아이템이 무제한 제공된다.

크리스마스 및 연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칠면조와 통돼지구이 로스트도 준비했다. 부쉬드 노엘, 블랙 포레스트 케이크, 진저 브레드 하우

스 등 크리스마스 테마에 맞춘 디저트도 강화했다.

특히,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는 고객에 한해 15%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관계자는 "주말 저녁의 경우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 사전에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예약문의는 홈페이지(<http://highwangju.com>) 또는 전화 062-610-7061. /박기용기자 pboxer@

## 11월 광주·전남 주식 거래량·대금 증가

11월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2억 5368만주에서 4억4762만주로 1억9394만주(76.45%)가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조5338억원에서 4조 5584억원으로 2조246억원(79.90%) 늘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전국

대비 거래량은 1.75%, 거래대금은 1.49%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서울식품, 에이프로젠제약, KEC, 성지건설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가오 순이다. 코스닥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국일제지, 델론, KD건설, CMG제약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신라전, 셀트리온, 델론 순으로 높았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